

美·日 기준금리 인상 전망… 한은 ‘금리차 샌드위치’ 시험대

한은, 조건부 금리전망 ‘인상’ 무게
원화 강세시 인상압력 줄어든 듯
美 추가 긴축, 유가·환율 오르면
수입물가 거쳐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주 나란히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연 3.50~3.75%, 한국은 3.00%, 일본은 1.00%다.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미 기준금리차는 1.00%p(상단 기준)로 벌어지고 한·일 금리차는 1.75%p로 좁혀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17일 새벽 금리 결정 결과를 발표한다. 일본은행은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 美 물가 월간 재가속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보다 0.4%, 전년 동월보다 3.4%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사이 3.9% 뛰며 전체 월간 상승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



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7월 2.5%보다 둔화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0.2%에서 0.3%로 높아졌다. 연간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단기 물가 압력은 다시 강해진 것.

CPI 발표 직후 금리전문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0.25%p 인상 확률은 72%에서 86%까지 상승했다. 연준은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전체 위원 가운데 3명은 0.25%p 인상을 주장했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 된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결정과 함께 공개되는 경제전망과 점도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쏠린다. 에너지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볼지, 추가 긴축이 필요한 기조적 압력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금리 경로를 가를 전망이다.

일본은행도 기준금리를 1.25%로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스 고이치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최근 일본의 명목 중립금

리를 1.1~2.5%로 추정하면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원화 약세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일 금리 차 축소는 원화 자산의 상대적 금리 매력을 낮추지만, 엔화가 강해지면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 한국 수출품의 일본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화에 미칠 영향은 연준 인상보다 복잡적이다.

◆ 10월 금통위, 관건은 환율·유가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 서 거래됐다. 7월 초 장중 1560원 선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200원 넘게 낮아졌다. 한은도 지난 8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완화와 미 달러화 약세, 외환 수급 개선 등을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미 금리 차만으로 최근 환율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역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해 3.00%까지 끌어 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 근원물

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한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도 금융안정 부담으로 남아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에서는 총 21개 점 가운데 3.00%에 5개, 3.25%에 10개, 3.50%에 6개가 놓였다. 이는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의 경제 전망과 불확실성의 확률 분포를 반영해 3개씩 제시한 결과다. 각각의 점을 독립된 인상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 분포가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음 금통위는 오는 10월 22일 열린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 대외 부문의 인상 압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연준이 추가 긴축 신호를 내놓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르면 수입물가를 거쳐 3.25% 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정기예금 금리 3%대 인상… 은행권 ‘수신 경쟁’ 재점화

하나·우리·신한, 금리 잇달아 인상
NH농협은행, 1년만기 3.45% ‘최고’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 20.3조 증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반까지 올라온 가운데, 고객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인 ‘NH 올원e예금’의 금리를 가입 기간별로 0.2~0.3%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2년 미만 상품 금리는 0.2%p, 2년 이상 3년 미만 상품 금리는 0.3%p 각각 올랐다.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3.25%에서 연 3.45%로 높아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했다.



Chat GPT가 생성한 주요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인상 이미지.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3%로 0.1%p 올렸다. 지난 7월 연 2.9%에서 연 3.2%로 인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추가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WON플러스예금’ 1년 만기 금리를 연 3.2%에서 연 3.4%로 0.2%p 인상했다. 2년 만기 금리도 기존 연 2.5%에서 연 3.0%로 0.5%p 올렸다.

신한은행도 지난 9일 ‘쏟아진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3.2%에서

연 3.4%로 0.2%p 인상했다.

5대 은행 가운데 1년 만기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연 3.45%다. 나머지 은행들도 연 3.2~3.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5대 은행 모두 3%대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신상품에 대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코드K 정기예금’에 연 3.61%,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연 3.60%를 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운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주요 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으로 유입되는 정기예금 자금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은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에도 42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

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머물던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역머니무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기예금 증가에는 금리 상승뿐 아니라 기존 예금의 만기 도래와 재예치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금 이동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까지 높은 수신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금리 경쟁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중후반까지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추석연휴 대출 만기시 상환일 28일 자동연장

금융당국·금융권, 불편 최소화 방안

금융당국과 전(全) 금융권이 오는 24~27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4일~9월 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9월 28일로 자동 연장한다.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료 등도 납부일이 28일로 늦춰진다. 주택연금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금도 연휴 기간 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일을 2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을 포함해 9월 28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3일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면 연휴 직후(오는 28일~3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일부 채권·금·배출권 등은 23일에 매도한 경우에만 해당대금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국내 12개 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 간접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른 금리우대 대출도 공급된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한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안승진 기자 asj231@

이번주 10개 단지서 1만152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의정부 녹양동 ‘의정부우정지구A2’ 등

아파트 분양 성수기를 맞아 1만 가구 이상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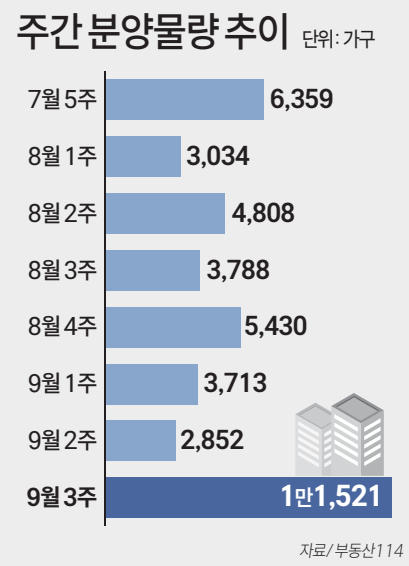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1만15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만490가구다.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지구A2(공공분양, 본청약)’,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3·4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천안아이파크시티3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896가구 규모다. 4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818가구 규모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2029년 목표)이 개통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해지며, 천안IC를 통한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직주 근접 여건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으로 천안성성3조(2028년 예정)가 신설 예정이며, 성성지구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우정지구A2’는 19~20층 6개동, 전용면적 59㎡, 총 46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사전청약 당첨자 등 289가구를 제외한 174가구 이번엔 공급된다. 본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본형 기준 3억 8207만원~4억 4191만원이다. 의정부시 거주자는 지역 우선공급 100%가 적용돼 당

/안상미 기자 smahn1@